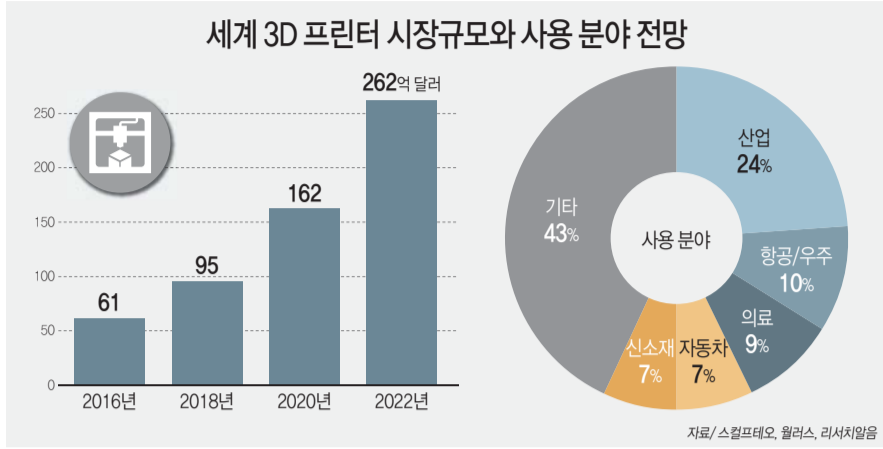


# 보잉이 2대주주... '3D프린팅' 날개 달고 신성장동력 기대

## 株라쿨라의 종목

무선통신 전문업체 | 휴니드 |

보잉서 2000만 달러 투자 유치  
3D프린터 활용시 원재료 90% ↓  
인천 송도에 기술혁신센터 신설  
3D프린터 항공기 부품 개발 박차  
“현 주가보다 38.1% 상승여력 있어”



출의 대부분은 방산사업에서 발생한다.

주로 전술통신장비와 지휘통제장비를 생산해 군에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총 5조40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전술 정보통신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휴니드는 이번 사업에서 총 1조4000억원 예산의 대용량 무선전송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다.

또 휴니드는 지난 2006년 보잉으로부터

2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로 굴지의 항공·방위 사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현재 보잉은 휴니드의 지분 11.7%를 확보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든든한 투자자이자 확실한 수요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실적이 과대계상됐고, 이로 인해 올해 실적이 발표되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보잉 737 맥스의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방산사업의 특성상 대북관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 연구원은, 향후 이런 우려가 해소되면서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휴니드가 최근 진출한 3D 프린팅 사업에 주목했다.

휴니드는 지난달 세계 금속 3D 프린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EOS 사(社)와 함께 인천 송도에 3D 프린팅 기술혁신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EOS에서 파견된 인력과 함께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원재료를 90% 이상 줄일 수 있는데다 생산 후 검수와 유지보수 등에 쓰이는

비용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복잡한 설계의 부품들도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어 항공이나 자동차 업체들이 3D 프린터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잉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 도입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다.

현재 보잉은 여객기, 군용기, 국제우주정거장에 사용되는 부품 가운데 6만여개를 3D 적층 가공 방식으로 제작해 적용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보잉이 휴니드의 2대 주주라는 점, 보잉에서 금속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 동사가 금속 3D 프린팅 업계 글로벌 1위 업체와 협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벤트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휴니드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1만25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보다 38.1%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로또단지’ 등 전국 14곳·5640가구 청약

### 분양캘린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15곳, 건본주택 3곳 개관

4월 둘째 주엔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5640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로또단지’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은 여전히 수요가 높다.

지난 3일 청약을 진행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31.08대 1을, 4일 청약을 진행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4월 둘째 주에는 청량리역세권 일대 두 번째 분양 주자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59층)가 특별공급 접수를 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발표는 ‘호반써밋 송도’,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19곳, 계약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등 15곳에서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화성 우방 아이유엘 메가시티’,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 세명리첼’, 대구 북구 읍내동 ‘강북 태왕아너스 더 퍼스트’ 등 전국 3곳에서 문을 연다. /채신화 기자

## 실질 대출금리 3.0%... 5년 만에 ‘최고’

가계대출 가계평균금리 3.50% 자산가 유리, 저소득층 불리 야기

최근 명목대출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질 대출금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대출금리 하락 속도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0%로 지난해 10월 3.64% 이후 하락세다.

2월 금리 수준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이전인 2017년 9월(3.41%) 이후 최저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다.

그러나 실질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다. 가계대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2월 실질 은행대출금리는 3.0%로 2014년 2월(3.05%) 이후 최고였다.

실질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1.63%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실질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명목 대출금리 하락 속도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1월 2%대를 기록했지만 12월 1.3%, 올해 1



서울 중구 명동 한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월 0.8%에서 2월에는 0.5%로 감소했다. 지난해 11월(2.0%)과 비교하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포인트 축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명목 대출금리는 3.63%에서 3.50%로 0.13%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실질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해도 경제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빚 부담이 늘어나지만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은 물가를 고려하면 예금 이자가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하지만 명목 금리가 그대로여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긴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산가는 더 유리해지고 저소득층은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주식형펀드 수익률 4%... “자금유출 지속”

### 주간펀드동향

자금유출 국내 5720억·해외 1210억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4%를 기록했다. 다만 주식형펀드의 자금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3월 29일~4월 4일)간 전주 대비 3.69% 상승한 2206.53 포인트를 기록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개최될 것이라 소식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다. 해당 기간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4323억원, 9995억원을 순매수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

orld Index)는 전주 대비 2.27% 상승한 2142.75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3.40% 상승한 1080.73을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4.0% 상승했다. 총 5720억원의 자금 유출이 있었으나 증시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로 순자산은 1조8820억원 늘었다.

반면, 베트남(0.34%), 러시아(1.00%)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3.96% 상승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중국(6.87%)과 브라질(5.78%)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 역시 신흥아시아 유형을 중심으로 총 1210억원의 자금 유출이 있었지만 전체 순자산은 8700억원 늘었다.

에프앤가이드 펀드평가팀은 “주식형 유형의 자금 유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지 기자

## 건설업자→건설사업자 법정용어 변경... 업계 “환영”

건설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7일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협 측은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졌다”라며 “이번에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됐다”고 했다.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줘 감사하다”라며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